

눈, 탄, 막장, 사북, 강원랜드

- 1980년 사북노동항쟁과 2003년 강원랜드 카지노&호텔 -

원시림(소설가)



산이 아니라 폐석이다.
사북노동자들의 거친 숨소리가 쌓아 놓은 폐석산이다.

사북에 간다.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기차는 중앙선 레일을 달리다가 제천에서부터 태백선으로 연결된다. 기차는 자주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산은 점점 높아져 계곡은 더 깊어진다.

사북역 플랫폼에서부터 사북은 과연 탄광도시답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역사 건너편으로 선탄장

과 하역장이 보이고 그 뒤쪽으로 눈 덮인 탄 더미가 또 하나의 산을 이루고 있다. 심지어 역사 한켠에 '사북탄광 제1광구'의 모형이 있고, 플랫폼에까지 탄차를 전시해 놓았으니... 사북으로 향하기 전에 보았던 이미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먼지, 사북을 묻다>가 문득 떠오른다. 당시 사북천주교회 신부였던 노야곱씨는 이미영 감독과의 인터뷰



얼마 남지 않은 사택도 폐광과 함께 흔적없이 사라질텐데, 20년 전 그들이 살던 곳에 지금도 탄광노동자들이 살고 있다.

에서 “동원탄좌가 없었으면 사북은 없었을 것이다. 학교, 병원 등도 모두 그와 관련이 있는 것이니, (...) 회사 문제면 사북 문제고, 사북 문제면 회사 문제였다”고 회고한 바 있다. 어수선한 읍내와 함께 ‘불안한 기대’가 어린 읍내 사람들의 눈동자가 보인다.

1980년 4월, 계엄령을 선포한 신군부가 정권찬탈의 기회를 노리고 있을 즈음 강원도 산골의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광부들이 들고 일어나 “임금 인상과 어용노조의 퇴진”을 요구하며 사흘간 사북 읍내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던 일을 두고 사람들은 흔히 ‘사북사태’ 또는 ‘사북사건’이라 지칭한다. 그러나 ‘사건’ 또는 ‘사태’라는 용어는 지배자들의 역사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모름지기 당시의 동원탄좌 경영진이 관(官)과 경(警)의 비호 아래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해왔던 것에 대한 항거라면 ‘노동항쟁’이란 명칭으로 불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통일된 용어로 정립되지 않은

‘80년 사북에서 있었던 사실(史實)’에 대해 이 글에서는 ‘사북노동항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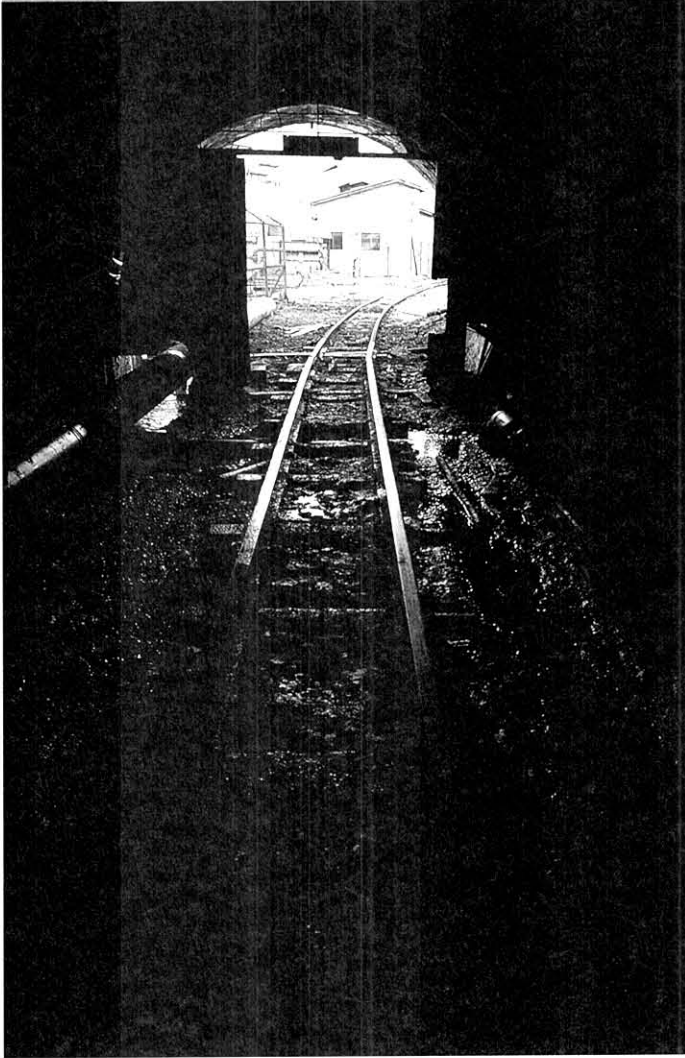
사북노동항쟁을 이끌었던 이원갑(63, 현재 ‘사북노동항쟁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위원장)씨는 사북 읍내가 제일 잘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사북읍 북쪽의 산기슭으로 올라가면 사북읍내와 사북역을 지나 맞은편으로 지장산 자락에 위치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언뜻 보기에 사북읍내는 강원랜드 카지노의 개장 때문에 온통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이다.

대체 무엇이 사북을 이렇게 변모시켰을까. 우리는 이원갑씨와 함께 80년 당시의 사북노동항쟁을 회상하면서 사북읍내를 지나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위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탄, 막장,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당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사장 이혁배)는 종업원수 3,052명으로 3,609ha 면적에 23개의 광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연간 채탄량 160만 톤(전국 채탄량의 9%)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민영 탄광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 면에서는 다른 탄광들과 마찬가지로 열악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이원갑씨의 증언과 여타의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광부들의





생활상을 그려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막장까지 몰린 '인간 두더지'의 형국이었지만, 노동조건은 그들을 더 깊은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막장은 보통 수백 수천 미터까지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데, 계절에 관계없이 30~50℃를 오르내리는 고온이고, 산소를 공급해 주는 컴프레서(공기압축기)는 회사에서 충분한 마력으로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늘 호흡이 곤란했다. 방진 마스크는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는데, 설령 마스크가 있다 해도 숨이 가쁘기 때문에 착용하고 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게다가 노후한 갱목과 안전시설의 부족으로 낙반, 붕괴, 화재, 가스누출 등의 재해에 늘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전국광산노조의 보고서에 의하면 1980년에만도 5,823명이 재해를 당했고, 이중 170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는 전체 종업원수 대비 10%에 육박하는 수치인데, 재해율로 따지자면 서독의 20배, 일본의 6배를 넘는 기록이라 한다.

뿐만아. 사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광부들은 늘 진규폐에 걸릴 위험을 안고 살아야 했다. 현대의학으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한 번 걸리면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책이라 한다.

진규폐 역시 5년 이하 광산 종사자의 7.1%가, 20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엔 76.3%가 걸리는 병이라니, 한 번 광부였던 사람은 탄 캐는 일을 그만두더라도 광부였다는 꼬리표를 평생 놓을 수 없는 셈이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임금은 도급제로, 그나마 소위 부비끼(지하 막장에서 캐낸 탄의 양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탄율이 실제 양보다 적게 깎

아 내리는 것)를 통해 작업량은 실제보다 늘 적게 계산되었다. 광부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16만원(당시 쌀 3가마니 가격) 정도의 임금을 받았지만 갱도를 나오면 목욕탕도 갖춰지지 않은 복지 시설과 시중보다 비싼 값에 운영되는 구판장 제도에 또 한번 울어야 했다. 간신히 '고양이 세수'만 하고 쓰러져 자는 공간은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7~8평의 사택인데, 공동수도와 변소를 이용해야 했고, 방음이 전혀 안 돼 부부생활이 곤란할 정도였단다. 게다가 회사에서는 정보원을 두고 밤낮으



당시 경찰과 접전이 벌어졌던 그 유명한 '인경다리'이다.

로 광부들을 감시하는 이른바 '암행독찰제'를 실시했으니, 당시 광부들의 생활이란 인간의 삶이라 부르기가 곤란할 지경이었다.

“광부들은 막장의 천장을 포함해서 두 하늘을 쳐다보며 일한다고 했었지요. 작업현장에선 특하면 억울하게 죽어갔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모든 죄를 덮어쓰고 또 한번 죽어야 했구요. 회사에 불평을 할라치면,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식이에요. 그러니 입술은 하얗고 눈만 반들반들해서 검둥이 폐잔병처럼 갱도를 빠져 나오고서야,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집에 갔지요.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으니, 무슨 희망과 꿈이 있었겠습니까.” 이원갑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억지로 웃음을 띄워본다.

당시 광부들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이 다소 길어졌지만, 이 같은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 사복노동항쟁의 진실을 제대로 알 수는 없을 듯싶다.

1980년 사복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1979년 치러진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서 회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던 (이른바 '어용노조'의) 이재기씨는 이원갑씨보다 2표 많은 15표를 얻어 6대 지부장에 선출되었다. 이는 무자격 대의원을 포섭

하고 대의원을 대동해 제주도에서 호화판 잔치를 베풀어주는 등의 불법을 동원한 때문이었다. 게다가 전국광산노조가 1980년 임금협상에서 42.75% 임금인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재기씨는 일방적으로 회사측과 20% 임금인상 협정을 체결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했다. 급기야 “지부장 사퇴, 노조규약 준수, 40%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조합원들에게 이재기측은 4월 19일 조합사무실에서 얘기하자고 미뤘으나, 막상 19일에 그들은 안하무인격으로 나왔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출동한 경찰은 당시 노조운동을 주도했던 신경(61)씨를 지서로 연행했다. 이후 신경씨는 석방되었지만, 이재기는 피신한 채 현지 경찰이 외려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사복노동항쟁은 걸잡을 수 없게 되었다. 1980년 4월 21일, 약속되었던 집회 허가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에 대해 정선경찰서 기동경찰들이 노조 사무실을 둘러싸고 해산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광부들의 요구가 격렬해졌고, 이에 겁먹은 형사가

지장산 맨 뒷자락, 70년대에 광부들이 살던 사택 자리에 이제는 카지노와 호텔이 들어섰다.





석탄을 나르던 철길 위에 탄광 노동자들이 떠난 흔적은 없다. 그 많은 아픔을 겪은 이들이 '사복'을 잊을 수 있을까?

“
광부들은 막장의 천장을
포함해서 두 하늘을 쳐다보며
일한다고 했었지요.
”

지프를 타고 도망치다가 서너 명의 광부를 치었던 것.

분노한 광부들은 몽둥이, 곡괭이 등으로 무장한 뒤 “지부장을 쫓아내고, 임금인상 40% 쟁취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결하기 시작, 사복지서와

광업소 사무실로 몰려가 집기를 부수고 서류를 불살랐다. 그리고 다음 날, 가족들을 포함한 3천여 시위대는 이른바 ‘안경다리전투’에서 5백여 기동경찰과 맞서 철로 변에 흩어진 자갈을 던지며 싸워, 이들을 몰아내고 사복을 완전히 점거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이덕수 순경이 사망했고, 분노가 극에 달한 시위대가 이재기씨의 부인 김순이씨를 린치(私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흔히 이덕수 순경의 사망과 김순이씨 린치 사건 때문에 사복노동항쟁의 진실이 호도되곤 했다. 실제로 1980년 4월 24일자 신문지상에는 김순이씨 린치 사진이 크게 실리면서 ‘유혈난동’이니, ‘무법세상’이니 하는 문구가 대서특필되었다. 「탄광촌 공화국」이란 책을 낸 바 있는 홍춘봉 기자(46, 노동일보)는 ‘김순이씨 린치 사건’에 대해 “노동항쟁 과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지요. 불신이 컸던 상태에서 주로 해고된 직원부인들이 분노에 못 이겨 분풀이를 했던 겁니다. 사실 그들(이재기와 그의 부인)도 회사에 이용을 당했던 거고, 피해자인 셈”이라 말한다.

당시 접전이 벌어졌던 ‘안경다리’는 반원 형태의 굴다리로, 지금은 바로 옆에 새로 만들어진 ‘사복지하차도’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원갑씨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굴다리 안에 갱목으로 ‘정(井)’자 모양의 바리케이트를 치고 광부들은 그 위쪽 기차길에서 아래쪽 경찰들을 향해 자갈을 던지거나 갱목을 굴렀다고 한다.

당시 사복읍내가 ‘무법천지’였다는 외부 보도와는 달리, 광부들이 타격을 가한 곳은 관공서와 광업소 경영진들의 집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이원갑씨는 23일 오전 광업소 무기고와 화약고를 점거토록 하고 김성배 강원도지사, 유내형 강원도 경찰국장 등 수습대책위원들과의 협상을 서둘렀다고 한다. “결국 사복사건이 발발할 수 있었던 원인 제공은 관이 한

거예요. 비민주적으로 대응하다보니까... 기업과 노동자들의 이익이 관하고 결부되어 협상을 했다는 것은 당시 사회상을 짐작하게 하는 겁니다. (...) 누군가 공수부대가 올 거라고 정보를 줘서 빨리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했지요.”

사북노동항쟁 나흘째인 24일 합의된 사항은 모두 11개 조항인데, “지부장과 노조집행부 총사퇴, 부상자 치료 및 보상금 회사부담, 상여금 250%를 400%로 인상, 경찰 실력행사 절대 불가” 등이었다. 이후 4월 28일부터 사북광업소는 정상조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시 계엄사령부는 대책회의를 하자는 명목으로 5월 6일 사북읍사무소(현재 고한읍사무소)에 핵심인물들을 모이도록 한 뒤 총검으로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해 이원갑, 신경씨를 비롯한 13명을 연행하고, 이어 7일에도 주동자, 배후조종자, 폭행 가담자 등 100여 명을 체포영장도 없이 붙잡아 갔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해진 고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혹한 것들이었다.

강원랜드 카지노&호텔 개장

한때 사북, 고한의 인구가 8만을 헤아릴 때, 시(市)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부흥했던 사북은 이제 1만 5천명 가량의 인구밖에 남지 않았다. 작년 삼척탄좌의 폐광에 이어 내년에는 동원탄좌가 폐광될 예정(현재 약 600여 명의 노동자가 남아 있다)이라고 하니, 탄광도시로서의 명맥은 완전히 끊어지고 본격적인 카지노 도시로 변모하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 달 사북광업소 위쪽 옛 지장산 사택 자리에 세워진 ‘강원랜드 호텔&카지노’가 사북의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될는지의 여부에 대

해서는 현지인들도 비관적인 입장인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정선지역발전연구소’의 김창완 소장(39)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본래 우리는 카지노를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핵폐기물 처리장과 군부대, 교도소 유치까지 거론되었지만, 그때도 카지노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벌써부터 사북이 카지노 도시로 이미지가 고착된 데다 도박중독, 카지노 노숙자, 전당포의 난립, 범죄 증가, 전월세 가격 급등 등이 지역의 현안문제가 되고 있으니, 카지노를 선택한 것에 대해 이곳에서는 차선(次善)이 아닌 차악(次惡)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사북이 카지노 도시로 변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인 듯싶다. 다만 강원랜드가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했듯 2004년 4월 개장될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2005년 11월 개장될 8면 슬로프의 ‘스키장’이 제 구실을 다해 카지노가 아닌 ‘국제적 규모의 가족형 종합 휴양지’로서의 면모를 일러 갖추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하여 사북이 카지노 도시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게 되기를...

사북은 4월말이나 되어야 눈이 다 녹는다고 한다. 떠나면서 휘둘러보는 사북의 풍경 역시 탄과 갯도를 덮고 있는 희뿌연 눈이 압도적이다. 어찌면 지금까지 사북의 진실도 겨울의 사북처럼 오래도록 눈 속에 묻혀 지냈는지도 모를 일이다. (취재 내내 귀한 시간 내어 동행해 준 이원갑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시림

소설가. 1972년 충북 제천 출생. 1999년 <진주신문> 가을문예와 2000년 <작가세계>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 발표적으로 「기동」, 「용꿈」, 「믹스엔매치」, 「소멸의 흔적」 등이 있음. wonsilim@korea.com